
第12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2月21日(水)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年度體育施設管理事業所業務報告
 2. 2001年度國際協力擔當官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2001年度體育施設管理事業所業務報告 ... 1面
 2. 2001年度國際協力擔當官業務報告 ... 2面
-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소관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1年度體育施設管理事業所業務報告

2. 2001年度國際協力擔當官業務報告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1항 2001年度 體育施設管理事業所 業務報告의 件, 의사일정 제2항 2001年度 國際協力擔當官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朴仁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劉俊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朴仁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소 관련 업무에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업소 업무 관련사항은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소장 이하 전직원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紹介: 運營課長 丁優聲, 施設管理課長 張在國, 東大門運營官 黃且雄, 木洞運營官 朴淳七)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體育施設管理事業所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劉俊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서울시
의 문화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
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만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
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계
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 팀장들을 소
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紹介:交流企劃팀長 朴賢浩, 美洲팀長 李基珩, 歐洲팀
長 曹圭逸, 國際會議팀長 高承孝)

저희 과에는 아시아팀이 더 있습니다만, 아시아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교류기획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

國際協力擔當官 主要業務計劃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委員長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 委員; 車星煥委員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 우호도시가 18개 도시로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최초가 언제부터 협력을 시작한 것이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타이베이와 우리 나라 최초로 서울시가 했는데 그 때가 1968년입니다.

○車星煥 委員; 68년부터 시작했다, 이거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타이베이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타이베이는 최초로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한중 간의 일시적인 교류중단이 있었던 관계로

잠시 교류관계가 멀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특별히 자매 우호도시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도입된 사례가 있나요? 어떤 정책 같은 것이.

도시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그쪽의 좋은 제도 이런 것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저희들이 우선 오히려 상대도시에 선진행정을 소위 말해서 수출했다고 하나요?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 같은 것은 타이베이시에서 우리 도시에 와서 직접 배워 가서 재작년부터인가 타이베이시에서 직접 쓰레기종량제를 배워 간 적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동경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세계 주요 도시로부터 각종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는 당장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車星煥 委員; 수시로 배운다 했을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우리가 받아들인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도시들의 기초자료를 보면, 어느 도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할 때 보통 대표단들이 직접 현장에 가고 시찰도 하고 보고 그러지요.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문제가 과거에 저희 80년대까지만 해도 전혀 서울시에서는 이야기 안되던 부분이 외국의 선진도시를 직접 가서 보고 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 중에서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지금 공식적으로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8명이고, 나머지는 주로 장기 해외훈련으로 나가 있는 직원들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주재관이 8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재관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히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외국도시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 수집해서 활용하는 그런 두 개의.....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8명이 몇 개국에 나가 있는 것이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4개 국입니다. 북경, LA, 동경, 파리, 뉴욕 4개 국인데 미국에 뉴욕과 LA 두 군데 나가 있기 때문에 4개 국 5개 도시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4개 국의 5개 도시 8명이 나가있는데요. 여기서 8명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하기는 상당히 좀 인원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나라 교포들이나 그런 어떤 교민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 우리 나라의 바뀌어야 될 점이나 제도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그런 교포들의 정보네트워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는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저희들이 사실 8명이 나가 있어서 어떤 분은 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북경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현지인들을 몇 명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역할이고, 저희들 사실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직원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종 한국중소기업, 또 거기 중소기업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특히 북경같은 경우는 약 한 1,000개 정도의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시정모니터를 이번에 모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 있는 사례를,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도입할 수도 있고 검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교민들이 각국에 나가서 느끼는 행정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느꼈던 어떤 불편한 사례, 또는 우리가 좋았던 것도 있지요?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 해외모니터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물론 해외주재관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자동적으로, 분기별로 매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고를.....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해서 23건인가 이렇게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나면, 170억을 들여서 23건을 지금 추진중인데요. 그러면 내년 월드컵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연습이랄까 뭐 실전이랄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은 시설물관리유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주기가 돼서 주경기장은 저희가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정기검사는 저희가 분기,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두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동대문운동장하고 목동운동장이 공식연습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림픽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준비캠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우선 잔디장, 화장실, 샤워장, 기타 거기 오는 선수 내지는 임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등등 해서 저희가 금년 8월까지 준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안전진단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준비기간이 거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네, 그 말을 믿고 저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하셨습니다.

다음은 柳辰永委員님 질의하세요.

○柳辰永 委員; 柳辰永委員입니다.

방금 車星煥委員이 노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최근 2년간 시설수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알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그리고 13페이지의 장미거리조성이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장미거리 조성하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실천하고 금년 2단계로 4월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공공기관 녹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 본청의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천만그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로부터 작년 추경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柳辰永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동대문운동장 충분한 사업타당성조사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柳辰永 委員; 공원조성계획 말이에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동대문운동장 공원조성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柳辰永 委員; 네, 타당성조사 실시를 어떻게 하셨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동대문운동장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이 지금 현재 기왕에 테니스장이 두 면이 있고, 거기에 씨름장이 있고 수영장이 국내 최초로 있던 수영장이 있었는데 지금 수영장은 이미 오래 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 폐쇄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씨름장이 있습니다만, 씨름장은 현재 폐쇄는 안 했지만 사용횟수가 적어서 폐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보기 흉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일대의 여러 가지 환경 등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중요한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공원녹지를 조성을 해서 그 인근의 우리 시민들한테, 또 주변환경에 같이 조화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柳辰永 委員; 동대문운동장의 존속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 동대문운동장의 존속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이 없고,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柳辰永 委員; 수목식재 소나무 외 1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원녹지과의 천만그루나무심기 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柳辰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李東秦委員님 질의하세요.

○李東秦 委員; 李東秦委員입니다.

먼저 국제협력담당관, 7쪽에 보편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디다만, 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하는데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인솔해서 가고 할 것입디다만, 그런 경우에 그 동안에 어떤 서울시가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이 서울시내의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디까, 혹은 교육청으로부터 협력요청이 있었다든가?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주로 대사관이라든지, 그쪽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서울시의 주요현장이라든지 시설을 견학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디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외국에서 학생들이 오는 경우 말고, 또 국내 학생들이 외국의 우리와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저희들이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특별히 도움을 준 적은 현재까지 별로 없습디다.

○李東秦 委員;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청소년배구대회라든지, 이런 체육스포츠 교류는 저희들이 각 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이요. 나

머지는 저희들이......

○李東秦 委員; 어차피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 학생들이 교류를 하든, 일반 민간인이 교류를 하든,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이 교류를 하는데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나름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나 가겠습니다만, 기왕에 자매도시라든지, 관련 우리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외에 학생들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기관간에 협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하셔서 협력방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도시간 교류협력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자매우호도시하고 협력 협정을 체결한 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네, 이렇습니다.

우선 자매도시, 우호도시라는 개념 자체부터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李東秦 委員;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깐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자매도시, 우호도시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구분이 없는데 영어로 자매도시는 sister city고, 우호도시는 friendship city입니다.

그래서 일부도시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자매도시, 우호도시 구별이 없이 그냥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도시는 자매도시는 1개 도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도시는 우호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자매, 우호도시라는 말을 썼고, 또 앞에 협력·협정체결도시라는 것은 우리들이 도시와 자매·우호도시협정을 맺을 때 그냥 이쪽 상대가 좋고 이쪽이 좋다고 그냥 단순히 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전에 보통 한 3년 내지 5년 동안 다른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매도시, 협력도시의 체결 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의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네.

○李東秦 委員; 알겠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조금 일찍이 이 부분이 우호관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먼저 체결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바

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해외 서울관이 있잖아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있지요? 거기에 중소기업제품들이 조악한 것이 많아서 지적이 되어서 개선을 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네, 그 때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하고 다시 개선을 하도록 지시을 했는데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제품을 전부 다 교체해서, 그 때 LA전시관인데 거기에서 중소기업 12개 사 820점을 전부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상품이 교체되면 전시를 하는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경기 관람객 외에 이렇게 변화하고 난 다음에 이용객, 그러니까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이용객들이 좀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되어 있는 것이 성화대 옆에 화분대를 설치하고 꽃을 심어서 성화대를 배경으로 사진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는 와 가지고 출입문에서 운동장을 바라만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너가서 운동장에서 걷는다든지 뛰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못해서 스탠드에서 운동장 넘어가는 데를 저희가 표현은 구름다리로 했습니다만,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에 가서 뛰어보고 달려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눈이 온 관계로 많이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일반시민들이나 혹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하고, 이것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볼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내지는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들어 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품화 해낼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만 그렇게 바꾸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거기에 찾아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88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설치해 놓고 한번도 개보수라든지 상품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부도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당시에 사용했던 기념품 등등을 모으고 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李東秦 委員;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 동안에 되어 왔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조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왕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와서 경기관람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는 그런 유인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동대문운동장 테니스장과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효창구장의 테니스장을 백범기념사업회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운동장 체육시설부지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효창구장에 테니스장이 이번에 백범기념관을 만들면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세 군데를 모색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바로 한 군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동 운동장에 테니스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李東秦 委員;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드리지요.

지금 효창공원 테니스장이 언제 폐쇄되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4월말경.....

○李東秦 委員; 그 이후에는 할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테니스연합회에서 그 동안에 관리하고 운영해 왔습니까?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 李東秦 委員; 지금 창동의 경우는 어떤 시설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계획만 되어 있고,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지금 여기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이왕에..... 테니스장이 지금 몇 면입니까?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2면인데 5면으로 해서 저희가 3면을 증설합니다.
- 李東秦 委員; 5면입니까?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현재는 2면이 있는데
- 李東秦 委員; 총 면수가 5면밖에 안돼요?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는 2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화하면서 5면으로 3면을 증설합니다.
- 李東秦 委員; 그렇습니까? 면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 뒤에 도면 보시면 5면입니다.
- 李東秦 委員; 5면밖에 안 되네요. 실제 효창구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테니스장 규모는 몇 면 정도 돼요?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15면입니다.
- 李東秦 委員; 15면입니까? 그러면 효창구장 테니스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지 규모상 상당히 어렵겠네요.
-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충동 위에 약수동 올라가는 좌측편에 옛날에 이화여대 체육관에서 쓰던 테니스장이 12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8면을 증설해서 20면으로 해서 일단 효창구장에서 없어지는 테니스장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청소년체육과에서 추진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창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구 이대 테니스장, 그 다음에 저희가 동대문운동장에서 증설하는 3개 해 가지고 그것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

○李東秦 委員; 이대 테니스장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빌려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 되잖아요. 서울시 부지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게 지금 남산 도시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으로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東秦 委員; 시 소유의 부지에 테니스장 시설은 이대에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 때, 옛날에 이대 체육장에 테니스장 부지로 사용했던 것인데 저희 서울시가.....

○李東秦 委員; 지금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도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인데 거기에 12면이 있는데 다시 8면을 증설해서 20면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효창구장의 테니스장이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올 4월에 폐장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동안 체육청소년과든 어디든 체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창동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창동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한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테니스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 12면이 있고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시급히 조성해서 하는 것이 예산 측면이나 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창동 운동장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은 하나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체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李東秦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창동 운동장 부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 하면서 테니스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李東秦 委員; 테니스장이 포함되는데 그 용도를 말이지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효창구장에 있는 테니스장의 대안으로 창동 얘기를 해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대안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가 현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용역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해서 시설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더 확인해서 서면 내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석에서는 더 이상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李東秦 委員;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과약을 정확히 못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4월 1일 폐장되는 테니스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대....., 공식 명칭이 뭐예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구 이대 체육장,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육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그렇게 얘기하네요.

○李東秦 委員; 서울시 소유의 이대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테니스장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 증면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수해서 그 대안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 조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金星煥委員님 질의하세요.

○金星煥 委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李東秦委員께서도 질의하셨습시다만,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을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주경기장 여기 보니까 외국인 유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1쪽에.

올림픽 주경기장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우리 올림픽 주경기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오시게 되면 관광회사에서 저희 주경기장을 방문하는데 그 내용이 그 관광객들이 오면 주경기장을 둘러 보면서 거기에 있는 관광상점에서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이 인원통계는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인원통계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항상 국내인을 비롯해서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金星煥 委員; 여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런데 들어 갈 때 입장료를 2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가 확인이 됩니다.

○金星煥 委員; 200원씩 받는다고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외국인들은 미국, 일본인들만 있나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요 근래에는 중국어권의 동남아쪽에서 많이 오고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한 입장인데 그 이유가 동대문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쇼핑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그리 빠지는 바람에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동남아권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200원씩 받는다고 하면 특별히 이것 때문에 관광수익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이것 가지고 수입이 많이 증

대되었다, 안 되었다 할 그런 예산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받는 내용은 저희 체육시설을 일종의 이용하는 차원으로 보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金星煥 委員; 주경기장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꽃길조성 등을 제외하고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종합운동장 내를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뭐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방침은 금년도 4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나무식재도 하고 주변환경정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 4월경에 장미로 단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으로 저희가 무료로 결혼예식장을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하여튼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주경기장이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치른 상징적인 장소이기는 하나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관람해야만 될 관광명소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베를린 주경기장처럼 이것이 무슨 전통이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제가 외국인이더라도 특별히 시간 내서 여기를 갈 필요를 별로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넣어서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무슨 정말 달리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식재를 하고 단장을 하고 그런 것은 투입에 비

해서 산출의 효과가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은 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잠실운동장을 단장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내국인들이라든지,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외국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잘 방문하는 주경기장, 그 다음에 기념관도 있기 때문에 기념관 등등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 차제에 한다는 것이지, 그 분들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내·외국인 공히 200원씩 받는 건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올림픽 주경기장이 실제로 관광코스로 넣어서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32쪽에 동대문스포츠상가 공개입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2002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상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더 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보고서상의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우 그 동안에 장기간 끌어왔던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도 법원의 화해판결까지 받아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상가, 상인들은 내년, 즉 월드컵 끝날 때까지 1년간 더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여러 곳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이 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소한 거기서 입찰을 해서 계속 유지할 분들이야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입찰을 해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고치면 약 3개월 정도의 새로운 곳을 알아본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개경쟁입찰은 실제 계약만료일 약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원만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金星煥 委員; 그렇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星煥 委員; 그러려면 그 계획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는 2002년 1월 1일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법원의 화해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방침만, 금년까지만 수의 계약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현재의 민원도 잠재우면서 효과적으로 행정재산을 저희가 양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서로 우리 서울시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상인도 문제가 없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면 그 때 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하여튼 보고서상에는 조금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2002년 1월 1일에 마치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보고서상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교육청에서 잠실수영장을 쓰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유지나 이런 것은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는 저희가 5월 1일자로 시교육청으로 무상 저희가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운용하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金星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李東秦委員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李東秦 委員;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서울시 소유 이대 테니스장부지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저쪽 신라호텔 있잖아요. 신라호텔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죠? 그 다음에 약수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부분 그 좌측편에, 한남동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봐서 좌측편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것이 서울시 소유 부지가 확실한 겁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확실합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현재 부지의 관리부서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남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체육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체육시설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

리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우리 운영관의 보고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어쨌든 관련업무니까 이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관리부서가 어디고, 위치가 정확하게 지번까지 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테니스장의 이용현황, 임대를 주었으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고 향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관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업무보고 11쪽에 지금 여기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11쪽 한번 봐보세요.

각 검도, 에어로빅, 한국무용, 요가,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발레,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근거를 어디에서 준용해서 받고 있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委員長 劉俊相; 그런데 그 조례 보셨지요? 작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체육시설이용에관한특별법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거기 조례에는 수영장하고 체육관, 당구장이지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년 전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시절에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받게 되어 있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그런데 이 조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탁구장은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관이라고 하면, 농구를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체육관이 아니고 생활체육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 해서 체육관 나오는 난에 조례 별표7을 준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체육관 나와 있는 옆에 보시면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하는 관계 직원 있음)

○委員長 劉俊相; 그런데 받는 것이 시간당 쉽게 말해서 검도면 검도, 에어로빅, 이것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요? 똑같습니까?

(「시간당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베드민턴, 발레 그렇게 다 똑같이 받고 있어요?

(「네, 시간당 다 이 규정에 의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하나인데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기 때

문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에어로빅 들어가고 해서 1시간 하고, 월 사용료는 2만원, 2만 1,800원 이렇게 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인 경우에는 성인 2,500원 받고 탁구장은 1,500원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운영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비용 등등 해서 약간 차별화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본 사용료도 보면, 수영장은 성인이 2,500원이고 체육관은 1,800원이고 탁구장 같은 것은 1,500원이고 차별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조례상에 차별화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이 표대로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이런 문제점 없어요?

(「외부시설보다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체육관이」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반드시 사용료, 수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별표7에 의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데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습니다. 이 별표7이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자한테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다 개인 수영장보다 싸다고 해서 이

용률이 저희 사업소가 더 높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별표7에 체육관 등 했지요?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관에 대해서는 1,800원 받고 탁구장은 1,500원 받고, 이런 경우도 만약 그 논리라면 똑같이 받아야 마땅한데.

(「체육관하고 탁구장하고 검토면 검토, 탁구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강사료라든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탁구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탁구는 탁구다이 해서 시간당 받는 것이지만 그 외에 에어로빅은 음악을 틀어 주어야하고 판을 사고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별표7을 할 때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서 된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에어로빅은 음악도 틀어주고 강사료도 주어야 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만 주면 되거든요. 물론 부대시설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데 다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글썄, 이것이 타당한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7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星煥 委員님.

○金星煥 委員; 국제협력담당관, 2002년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의 주요 의제가 뭔가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의 주제는 현재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가, 주제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도시에서 주제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에서 정해서 메트로폴리스 사무국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금년 5월까지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조직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이것은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네요.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 저희들 수준으로는 사실 정하기 어렵고 특히 조직위원회 외부 전문가, 교수를 포함해서 또 상당히 학식이라든지 식견이 높은 분, 또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위원회에 저희들이 맡겨 놓았습니다.

○金星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3分 散會)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柳辰永
劉大運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國際協力擔當官 權赫昭